

2026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지역공연 공모

소개서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Korean National Concert Orchestra

‘정형의 깊이, 비정형의 상상력’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KNCO)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가 창단한 청년 중심 오케스트라로,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차세대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양성하는 ‘오케스트라 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 음악가들이 실전 무대를 통해 연주 역량과 앙상블 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형의 깊이, 비정형의 상상력’을 모토로 삼아 전통적인 클래식 형식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독창적인 해석을 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언어와 무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국립심포니 산하 예비 전문 음악인 양성과정인 ‘KNSO 아카데미’와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인 KNSO를 잇는 예술적 매개체로서, 한국 관현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다층적인 음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KNCO는 지역 문화 생태계의 활성화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며, 청년 음악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무대를 통해 동시대와 호흡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새로운 클래식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유 미 정

음악이 흐르는 삶,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음악이 흐르는 삶'이라는 창단 정신 아래, 교향악과 오페라, 발레를 아우르며 예술적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음악이 특별한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해왔습니다.

AI 시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잇는 예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국립심포니는 인간 중심의 하모니(Harmony)를 실천하는 오케스트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화음과 조화를 본질로 하는 음악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그 울림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국립심포니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로베르토 아바도 음악감독의 예술적 탁월함과团员들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K-클래식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나아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예술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2대 음악감독 김 성 진

김성진은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호흡과 앙상블 구축에 강점을 지닌 지휘자로, KNCO 2기의 새로운 출발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6년간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이끌며 음악적 완성도와 오케스트라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구축해왔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김천시향은 17년 만에 교향악축제 무대에 복귀하며, 지역 오케스트라의 존재감과 성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NCO 2기에서는 청년 연주자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 단체의 새로운 출발과 전통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작곡과를 거쳐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며 폭넓은 음악적 기반을 다졌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에 수석 입학, 크리스티안 에발트의 지도를 받으며 지휘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재학 중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합창단 지휘자 요르크 페터 바이글레에게 발탁되어 4년간 공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했고, 베를린 슈타츠오퍼 수석 오페라 코치 알렉산더 비틀린과 함께 오페라 레퍼토리를 연구하며 음악적 깊이를 확장했다.

독일에서 최고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그는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오케스트라 아이오와와 시더 래피즈 오페라단에서 객원 지휘자 및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다. 이후 브란덴부르크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아이오와, UI 챔버 오케스트라 등 해외 단체와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부천필하모닉, 경기필하모닉,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왔다.

2026 KNCO 기획공연

정기공연 연계

[출연] 지휘 김성진, 피아노 김희재, 연주 KNCO

[프로그램]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Op. 80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Op. 54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마단조, Op. 95 '신세계로부터'

[가능일]

11월 15일



실 내 악

[출연] KNCO 앙상블, 피아노 김종윤

[프로그램]

생상스, 트럼펫, 현악기, 피아노를 위한 7중주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가능일]

11월 15일, 20-22일



영화음악 / 대중 프로그램

[출연] 지휘 김성진, 협연 리베란테, 오은철, 연주 KNCO

[프로그램]

넬라 판타지아, 아름다운 나라
비제, <카르멘> 모음곡
영화 & 뮤지컬 음악 등

[가능일]

10월 22일, 23일 / 11월 15일, 19-22일 /
12월 10-16일, 22-24일

*(리베란테 출연가능일) 11월 19-22일 / 12월 10-16일



※ 상기 출연진/프로그램/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C o n t a c t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김성수, 공연기획팀장

O. 02. 523. 4670

M. 010. 8425. 2232

E. sskim@knso.or.kr

W. www.knso.or.kr